

사랑하던 비르지니의 이름을 줄기차게 부르다가 그녀가 죽은 지 두 달 뒤에 죽었지. 마르그리트는 아들이 죽고 나서 일주일 뒤에, 덕성을 갖춘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네. 그녀는 라 투르 부인에게 세상 다시없을 다정한 작별을 고하며, “영원히 끝나지 않을 따스한 재회를 고대하며”라는 말과 함께, “죽음은 가장 큰 복입니다. 그러니 죽음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요. 삶이 하나의 형벌이라면, 응당 그 끝을 염원해야 하는 것이요, 삶이 하나의 시련이라면, 짧게 끝나길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”라는 말을 덧붙였지.

총독부가 나서서 도맹그와 마리의 생활을 보살펴주었지만, 더 이상 누굴 섬길 처지가 아니었으니만큼, 그 둘도 주인보다 더 오래 살지는 못했네. 불쌍한 피텔 역시 자기 주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몸이 쇠약해지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어.

라 투르 부인은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, 그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굳센 영혼의 힘으로, 그토록 심대한 상실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었네.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, 마치 그녀가 감내해야 할 것은 폴과 마르그리트의 불행밖에 없다는 듯이 그 둘을 위로해 주었어. 더는 그들을 보지 못하자, 부인은 마치 인근에 사는 가장 소중한 친구들인 양 매일매일 내게 그들에 대해 말했지. 그렇지만 부인도 그들보다 겨우 한 달 정도 더 살았을 뿐이네. 이모